

“재즈·민요 감상하고, 지역·여성 강연 듣고”

●ACC 특별열람실 상반기 프로그램

4-6월 수요일 아카이브 클럽·음악감상회 운영
소장 아카이브 이해 및 ‘한국적인 소리’ 모색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ACC 특별 열람실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수요일 아카이브 클럽’과 ‘수요일 음악 감상회’를 운영한다.

ACC 소장 아카이브의 이해를 확장하기 위해 마련한 ‘수요일 아카이브 클럽’은 4-6월 아시아문화박물관 특별열람실에서 열린다. 이번 강연에서는 지역과 여성, 문화정치에 대한 아카이브와 기록을 살펴본다.

먼저 지난 17일에는 이민규 그래픽 디자이너가 지역, 여성, 현장의 관점으로 한국 디자인사의 공백을 채우고자 한 책 ‘이영희는 말할 수 있는가?’의 기획과 제작 경험을 공유했다. 또 이날 강의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이주여성의 12가지 요리법을 담은 책 ‘식탁은 걷는다’의 기획·제작 과정을 들려줬다.

다음달 8일에는 배우연 서강대 연구교수가 5·18민주화운동 다음 해 벌어진 국가 이벤트 ‘국풍81’부터 ‘제2회 서울올림픽(88올림픽)’까지 19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강원도 인제편 녹음 장면(왼쪽)과 최상일 전 MBC PD.



1981년도 ‘국풍 81’ 홍보 자료

80년대 3S(Sports, Sex, Screen)라고 불린 문화정치의 이면을 아카이브 자료와 함께 살펴본다.

이어 오는 6월5일에는 2009년부터 순천에서 ‘예술 공간 툃키호테’를 운영하고 있는 박해강·이영훈 기획자(연구

자)의 ‘전남미술사총서: 1900-2015’의 연구·조사 과정을 알아본다. 또 광주·전남의 미술사 연구, 활동, 아카이브에 대한 지형도를 돌아보고, 그 공백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24일, 5월22일, 6월19일 상반기 ‘수요일 음악 감상회’에서는 한국 재즈부터 민요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또 무엇이라 여겨졌는지 탐색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24일에는 황덕호 재즈 칼럼니스트가 198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재즈의 역사를 풀어낸다.

다음달 22일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과 함께 ‘아시아 사운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음반 ‘예언’을 발매하는 디제이 소울스케이프(DJ Soulscape)

가 한국 경음악과 재즈에서 영감을 받은 앨범 제작기를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6월19일에는 최상일 전 MBC PD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로 30여 년 동안 한국 민요를 기록한 여정을 포함해 세계 민속음악 탐방기를 들려준다.

참가 신청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신청은 무료이며, 참가비는 무료다.

이강현 전담장은 “ACC는 소장 자료를 아카이브로 구축해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ACC 아시아문화박물관 지하 4층에 자리한 특별열람실은 ACC 아카이브와 시청각 자료를 열람하고 감상할 수 있는 공간이니 많이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디제이 소울스케이프



서서평·김필레·현덕신이 만든 광주의 역사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여성길’ 전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오는 9월8일까지 3층 광주여성전시관 히스토리에서 기획전 ‘광주여성길: 서서평, 김필레, 현덕신이 만든 광주의 역사’를 개최한다. (사진)

광주여성길은 근·현대 광주여성 문화유산을 광주여성사를 중심으로 자원화한 도보 프로그램이다. 광주 여성사와 관련된 사건, 공간, 인물을 집중 조명하고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여성인물의 삶의 궤적을 통합한다. 두릅길과 백단심길, 흥단심길 등 총 3개 코스로 구성돼 있다.

재단은 서서평 90주기를 맞아 광주여성사 통사 및 구술생애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광주여성길’을 개발해 알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광주 근대여성교육의 역사를 중심으로 한 ‘두릅길’ 인물 서서평, 광주여성 독립운동을 중심으로 한 ‘백단심길’ 인물 김필레, 광주학생독립운동과 충장로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흥단심길’ 인물 현덕신을 다룬다.

아울러 잘 알려지지 않은 광주여성사를 소개하고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흥미롭게 조명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김경례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는 “광주 역사 속 여성들에 대한 재평가가 작업을 수행하면서 지역여성 문화의 중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성인지적 역사를 경험하는 문화 공간으로서 기능을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들을 만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시 관람이 어려운 관객을 위해 전시 영상을 재단 유튜브 및 온라인전시관(재단 홈페이지)에 공유할 계획이다. /최명진 기자

광주과학관, 무료개관...시민 발길 ‘복적’

과학의 날 당일 7천800여명 방문

국립광주과학관은 23일 “과학관 관람 기회 증대를 통한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무료개관 이벤트를 펼치는 가운데, 과학의 날이 포함된 지난 주말 1만5천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광주과학관은 4월 과학의 달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상설전시관(본관·어린이과학관·인공지능관) 무료개관 이벤트를 펼치고 있다.

이번 무료개관 이벤트는 과학의 날을 맞아 지난 19-21일을 시작으로 어린이날 연휴(5월4-6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까지 계속된다.

특히 과학의 날(4월21일) 당일에만 7천800여명의 관람객이 과학관을 방문하며 문진성시를 이뤘다. 이날 개관이



후 11년간 4월 관람객으로는 가장 많은 방문자 수를 기록했고, 이는 직전 주말에 비해 5배에 이르는 규모다.

정세환 전시운영센터 연구원은 “지난 주말 무료개관 이벤트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과학관에 방문해주셨다”며 “앞으로도 새로운 이벤트를 선보이며 시민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 고객서비스 향상과 만족도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문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나주지사 061)335-0005
- 광양지사 061)793-6800
- 구례지사 061)782-4696
- 담양지사 061)383-5566
- 곡성지사 061)362-5746
- 고흥지사 061)832-6290
- 보성지사 061)852-6644
- 화순지사 061)373-7795
- 장흥지사 061)863-6800
- 강진지사 061)432-8899
- 해남지사 061)535-5849
- 영암지사 061)473-7151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